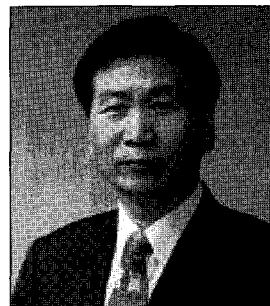


## 「한국의 로지스틱스가 당면한 주요과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부회장 서병륜

로지스틱스는 크게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로지스틱스인 국가물류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로지스틱스인 산업물류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서,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강화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의 발전방향 가운데서 중요한 한가지 과제는 동북아물류중심지로서의 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만이 아니라, 선언적 말잔치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학관의 관련자 모두와 국민의 깊은 관심과 이해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물류의 가야할 길은 고도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갖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에 관련된 하드웨어인프라만이 아니고 이를 시스템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과제인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폐기물류를 감안한 리사이클링형 리버스로지스틱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즉, 물류서비스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확보와 원활하고 안정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나누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지스틱스 관련 프로젝트를 시스템적으로 동북아물류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덜란드가 “Gateway to Europe” 이라는 국가과제를 가지고 오늘날 유럽 및 중동 그리고 아프리

카 대륙까지를 포함한 로지스틱스 중심센터를 건설하여 막대한 고용과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물류의 가야할 길은 더욱 험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통한 공업입국의 기치아래, 지난 30여년 간의 수출주도형 제조업위주의 성장엔진은 이제 그 효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킨지와 BCG의 한국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고도성장은 가치파괴의 연속이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틈새에서 닛크래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탈피하고 21세기 초반 우리경제의 선진국진입을 위한, 산업계의 절대적인 과제는 성장엔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류업 뿐만 아니고 제조업과 유통업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산업물류경쟁력강화는 우리기업들의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 및 단체들에서 발표되고 있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기업들의 로지스틱스 코스트는 선진국의 기업들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해외현지공장진출에 대응하는 글로벌로지스틱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서플라인 체인매니지먼트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에 대비하여 IT를 활용한 고도의 로지스틱스시스템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로지스틱스전문가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 개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어떤 기업이던, 사회이던, 국가이던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유하고있는 인적자원의 생산력에 의해 생존과 미래가 결정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로지스틱스에 관한 표준화와 공동화, 자동화의 추진과 로지스틱스 사회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물자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 리싸이클, 리유즈어블, 리터너블을 고려한 환경조화형 리버스로지스틱스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이와같은 국가물류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관한 한국로지스틱스의 좌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동북아물류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헛불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